

### 대운하 반대 물결 남도 왔다

####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 영산강 맞이 법회 봉행

2월 12일 겨울바람 속에 김포 애기봉을 출발한 한반도대운하반대 순례모임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영산강 어귀에 도착해 이들을 맞는 행사가 열렸다.

4월 15일 광주전남교구본사협의회(회장 성오)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는 영산강 상류 답양습지 옆 태암그린 공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례단 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성오 스님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을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며, 힘든 긴 여정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스님은 “광주 전남 불자들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계획임을 지적하며, 대운하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순례단의 지관 스님(용화사 주지)은 “한국 역사상 100일 동안 종교인들이 함께 노력하며 순례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강물은 그냥 강물이 아니라, 생명줄이고 마음의 고향”이라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말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은 한국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김포 애기봉을 출발해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65일간 1700리 길을 도보로 순례중이다. 순례단은 65일 순례기간 동안 위기에 처한 생명의 강을 위해 참회와 성찰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평일에는 50여명 이상, 주말에는 수백 명의 순례 동참자가 순례단의 길에 동참해 연인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부대 안전기원 및 장병 수계법회

####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재곤, 관음사 주지)와 공군 38전대(전대장 하성룡 대령)는 4월 13일 부대내 호국 군성사에서 무사고 안전기원 및 불자장병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재곤 스님과 송월 스님(성월사), 법희 스님(홍천사)과 법은 스님, 무진 스님(수도암), 정안 스님(정안사), 20B 정범 군법사, 김진수 단장(전북포교사단), 안근 회장(군산불교신도연합회) 외 군산지역 신도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불자장병 100여명이 계를 받았다.

전계사 재곤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은 악업을 소멸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다. 이제 계를 받았으니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심보에 의지해 군복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국 군성사는 미군 기지내에 위치한 특성상 법회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아 1982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나비·꽃이 우리의 선지식”

#### 법전 스님 합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서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합평나비곤충엑스포에서 법문을 하고있다.

“합평나비곤충엑스포는 무정물(無情物) 역시 불성(佛性)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제다. 친환경축제는 자연과 인간이 돌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이다.”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나비곤충엑스포에서 법문을 했다.

2008년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4월 18일 전남 합평에서 2008 합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기원대법회 및 방생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은 고향 합평에서 열리는 합평엑스포에 각별한 관심으로 법문을 했다. 법전 스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연기의 세계 속에서 산다. 즉 꽃과 나비와 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면 인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이다. ‘일체중생 실유불성’라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합평 땅에서 벌과 나비 꽃이 우리의 선지식을 다시금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지중 스님,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범만 스님(대흥사 주지)과 지선 스님(백양사 교불선원 주나), 해자 스님(도선사 주지), 김의정 회장(중앙신도회),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석현 합평군수

와 도선사 108순례단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합평엑스포성공기원 대법회 후에는 3만3000㎡에 조성된 습지에서 방생법회가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등 밝혀”

#### 전북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개막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리고 전북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원등이 불을 밝혔다. 전북 부처님 오신날 봉축 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12일 전주 서신동 롯데 백화점 사거리에서 봉축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봉축행사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전북 지역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등 대표적인 불교종단 스님들과 전북신도회, 전북 포교사단 등 포교 신도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기원등 점등식은 바라밀 합창단의 축하와 봉축

불꽃놀이 탑들이 등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곧 부처님 나라”라고 강조하며, “전라북도도 도출천의 세계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곧 부처님 나라”라고 강조하며, “전라북도도 도출천의 세계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현대인 위한 茶문화강좌

지친 현대인들에게 한 잔의 차로 여유를 일깨우는 “향기로운 차 생활” 문화강좌가 열린다. 사단법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 서남대 교수)은 오는 4월부터 한국차문화협회 사법 한운 스님(약사사 주지)과 함께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는 한국차의 개요와 현대인을 위

한 다도법 등 월 2회의 강의와 2회의 다도실습으로 이뤄진다.

한편 광주불교교육원은 4월 27일 ‘영산강과 나주 문화유적’을 찾아 떠나는 광주 어린이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어린이 역사탐방은 영산강 체험활동과 심학사, 나주목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228-909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달래향이 나오요~”

#### 김제 금산사, 화전놀이 템플스테이



금산사(주지 원행)는 4월11~13일, 불꽃 가득한 서래선원에서 ‘새봄맞이 화전놀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화전놀이 템플스테이는 108배, 참선, 예불 등 전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화전놀이를 추가한 것.

대부분이 가족단위였던 참가자들은 산사를 붉게 물들인 진달래꽃을 즐기며 상춘객들과 함께 화전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최백송 명창의 판소리 공연 등 가무를 즐겼다.

지도법사 일감 스님은 “새봄 산야의 꽃향기가 널리 퍼지듯 지혜가 널리 퍼져나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화전놀이를 마련했다”면서 “꽃향기처럼 생활의 지혜를 피우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청소년 포교 ‘눈높이’가 중요”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포교사를 꼽으라면 단연 정광고등학교 이동배 교법사(법명 진삼)다. 그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교법사이면서, 불교청소년단체인 광주파라미타의 실무를 맡는 등 활발한 청소년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이라 학교가 조용합니다”라며 반갑게 맞는 이동배 교법사. 그에게 청소년포교에 대해 물었다. 이동배 교법사는 “청소년포교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불교환경을 접하게 하고, 불교가 청소년에게 친숙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교

했다. 청파 스님은 지역 청소년, 청년법회를 활성화시킨 장본인으로 열정적으로 수행과 포교를 한 선지식이 있다. 청파 스님과 함께 불교를 배웠던 청년들이 중·장년이 된 지금, 불교학생회 등은 20여명이 ‘청파장학회’를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1982년 동국대 입학 후 <석림지> 편집장을 역임하던 그는, 당시 순수 학술지였던 <석림지>를 대중과 호흡하는 사회참여지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10·27법난 후 군사정권에 무참히 침탈당한 불교계 모습에 분개했던 그는 시위에 참가했고, 명진 스님(현 봉은사 주지)과 함께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교법사는 대학



### 불교문화 접하는데 부모역할 중요 매년 광주청소년음악놀이대회 개최

법사는 “사찰 내 아이들이 즐길 공간 마련은 물론 사찰에 머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 이동배 교법사는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사찰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성인이 되면 본인 스스로 선택하겠지만,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며, 공덕을 짓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동배 교법사가 처음 불교를 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절에 갔다. 단청이 무섭고, 신상이 무서웠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그때 이 교법사가 찾은 절은 완도 신흥사로 청파 스님이 주석

종후 10여 년 동안 군법사로 활동했다. 이 교법사는 “군법사로 재직하면서 비로소 불교의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역 후 정광고 교법사로 부임해 청소년포교에 매진하기 시작한 이동배 교법사는 파라미타광주지부를 만들었고, 매년 광주에서 가장 큰 광주청소년음악놀이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이동배 교법사의 열력 덕분에 7월 25일에는 파라미타전국대회가 광주·화산 일원에서 열린다. 이동배 교법사는 “불행대회와 파라미타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호남불교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 전북지사: (063)910-5199

## 제2회 어린이 방생법회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안성 도피안사에서는 해마다 ‘어린이 날’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방생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생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생명존엄의 자비체험을 갖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어린이들 자신의 수명과 복덕이 늘어나고 지혜와 자비가 자라게 됩니다. 이 뜻 깊은 방생법회에 두루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아 래 ■

주소\_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456-893)  
전화\_031-676-8700 | 전송\_031-676-8704  
Home Page\_ http://www.dopiansa.or.kr  
E-mail\_ dopiansa@kornet.net

주최\_안성 도피안사·(사)사찰생태연구소  
후원\_(재)한택식물원·서일농원

- ◎ 방생장소 : 안성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경내 연못 4곳, 「환희지(歡喜池),이구지(離垢池),선혜지(善慧池),법운지(法雲池)
- ◎ 때 : 1차 - 2008년 5월 4일(일) 10시 30분  
2차 - 2008년 5월12일(월) 부처님오신날 오후 1시 30분
- ◎ 참가비 : 한 가족당 5,000원 (참가하시는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점심공양과 선물을 드립니다. 다만 정소관계로 순서에 의해 50가족만 접수하오니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생공양금 : 물고기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공양금이 다릅니다. (오전원에서 부터...)

1. 어린이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2. 어항이나 집에서 기르던 물고기는 방생할 수 없고, 또한 서로 잡아먹는 외래종 물고기들도 방생할 수 없습니다. (방생 물고기는 절에서 준비함 - 미꾸라지, 잉어, 참붕어)

※ 어린 시절에 방생을 하면 어른이 되어 사냥이나 낚시 등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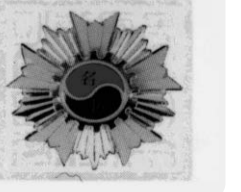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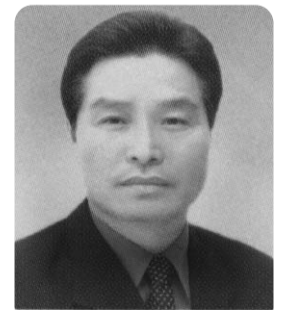
### 불상·석탑·석등·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활동적 : 활동적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반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의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월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장사 책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